

연간 추천의 손길 법률포럼사



“범람하는 출판물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회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홍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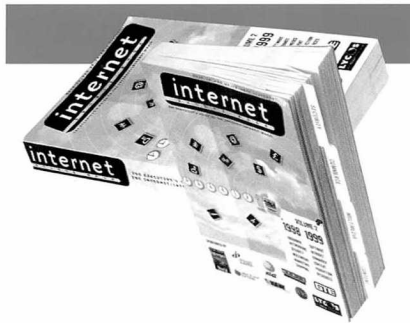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 출판은 인류가 이룩한 지식과 업적의 총체이자, 출판의 질과 양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 점에서 출판 진흥의 당위성이 나타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이의 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도외시킬 수 없다. 출판의 진흥은 물론 고품질 문화콘텐츠 산출의 원천이 되는 출판물의 확대재생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다.

출판전송권 침해실태와 대처방안

2001년 11월23일 학술출판물 출판사들은 무단복제로 인하여 출판활동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출판사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결의까지 한 바 있다. 이후 2002년에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어 무단복제물 단속에 법적 뒷받침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무단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 시대의 고도로 전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출판은 인류가 이룩한 지식과 업적의 총체이자, 출판의 질과 양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 점에서 출판 진흥의 당위성이 나타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이의 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도외시킬 수 없다. 출판의 진흥은 물론 고품질 문화콘텐츠 산출의 원천이 되는 출판물의 확대재생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다.

이렇듯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출판 진흥은 물론 문화콘텐츠 산출을 가로막고 나아가 문화시대 구현에 지장 내지 역행하는 심각성을 나타낸다. 이 심각성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첫째 구체적 침해실태를 조사하여 소개한 다음, 둘째 그에 대한 분석을 가하고, 셋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검토·제시하고자 한다.

〈침해실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침해는 자동복제기에 의한 것으로 계도와 단속은 대학가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불법복사의 대상이 주로 학술도서이기 때문에 제한된 단속 인원으로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자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수거 등의 대상인 불법복제물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문화·조직화되어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다. 대학교내 복

사점은 대학별로 체인화되어 있으며, 도서 정가의 40~50퍼센트를 선급금으로 받아 대량복사를 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사기도 최신형 고속 복사기를 사용하고, 특히 최근에는 무인카드복사기를 통하여 어느 누구의 감시나 제재 없는 복사환경을 구축하여 더욱 복사가 손쉽고 대량화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도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송이라는 이용형태에 대하여는 법제적으로 2000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검색 등을 통하여 적발 등을 한 침해건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온라인상의 포털사이트와 기타로 나누어 폐쇄, 적발 아이디, 저작물 삭제별로 각각 살펴보면, 금년 5월의 경우 16건(폐쇄), 217건(적발 아이디), 10,948건(저작물 삭제)이고, 6월의 경우 36건(적발 아이디), 1,341건(저작물 삭제)이며, 7월의 경우 53건(적발 아이디), 369건(저작물 삭제)으로 나타난다.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 카페·블로그 등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게재하여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써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예 시험교재·교육, 교양,



어학 등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무단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과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카페의 동호인 자격으로 불법물을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는 형태도 보인다.

근래에는 특히,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사이의 전송을 통하여 베스트셀러 도서의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댄 브라운의 저작 「다빈치코드」는 한글 파일로, 김훈의 저작 「칼의 노래」가 한글이나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로, 김성홍의 저작 「이건희 개혁 10」이 한글 파일로, 조정래의 저작 「태백산맥」이 한글 파일 등으로, 이문열의 저작 「삼국지」가 한글 파일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 등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많은 도서가 개인 대 개인 형태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논문제과와 관련한 침해양상이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유명 학술도서 13군데에서 일부분을 선별·복제하여 전송하는 침해를 행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 논문을 변형하여 제공하는 형태도 발견된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알려진 유명 논문제과 업체는 상당부분이 저작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용자에게 유료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액(추정)〉

오프라인을 통한 출판물은 자동복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대학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사는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직접 이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이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산을 한 3가지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첫째, 복사량에 의한 피해액 추정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의 복사기 보급대수는 1백만대다. 복사기 1대당 연간 복사량은 약 1만매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복사 1대당 출판손실을 면당 약 30원으로 산정한다. 국내의 연간 총 복사량은 약 100억매(1백만대×1만매)로 나타나는 바, 이에 따라 산정된 불법복사로 말미암은 연간 총 손실은 약 3천억원(100억매×30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복사비용에 의한 피해액 추정이다.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 재학생수는 약 120만명이고 전문대·대학원 등의 재학생수는 약 90만명이다. 여기에서 재학생 1인당 월평균 복사금액은 약 1만2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의 월간 복사비용 총액은 약 252억원(1만2천원×21만명)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24억원(252억원×12개월)에 이른다.

셋째, 복사본 보유에 의한 피해액 추정이다. 여기에서는 재학생 1인당 연간 제작된 복사본 보유권수는 약 8권이다. 학

술·전문도서의 1권당 평균 정가는 약 1만8천원(평균 400면 기준)이고, 전체 대학생 복사본 보유수는 약 1680만권(210만명×8권)으로 된다. 국내의 연간 총 복사량은 약 100억매(1백만대×1만매)인 바, 불법복사로 인한 연간 총 손실은 약 3024억원(1680만권×1만8천원)에 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각 방식으로 산출된 피해액은 연간 약 3천억원 정도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피해와 관련한 사람들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 i) 저작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대가를 도서정가의 10~15퍼센트로 잡고 피해액을 산정하면 약 300~350억 정도이고,
- ii) 출판사의 경우는 할인 출고가를 70~80퍼센트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면 약 2100~2400억원 정도이며,
- iii) 나머지는 서점과 유통업체의 피해액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복사를 한 다음 제책한 도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복사로 인한 도서의 구입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진다. 또한 일반인이 행하는 기업체에서의 복사,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의 복사를 포함한다면 그 금액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대처방안〉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의 적극

화·체계화·연계화·지속화가 요구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저작권자가 복제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일반 국민의 저작권 존중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그리 클 수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법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저작권보호센터가 미디어다음과 주관하여 인터넷상으로 펼치는 “저작권홍보용 인터넷 만화연재” 사업은 다소 지속성은 떨어지나, 적극적인 저작권 의식제고 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저작권 교육과의 연계, 저작권자 및 주요 이용자와의 연합,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의 방향이다. 여기에서 저작권 의식제고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저작권 교육의 확대와 적극화도 역시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제도적으로 각급학교에 대한 특별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교재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접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긴요하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수 논문이나 수기를 현상모집 한 다든가, 시청각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이벤트 행사를 지속화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그 예들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인력의 부족이나 교재개발 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도 오늘날의 환경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외함께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법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작권 부문에서 이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뜻한다. 특히, 저작권은 개인의 권리로 권리자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저작권자 스스로에 의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작권 부문에서 더욱 필요하다.

저작권자 단체 위주로 설립된 저작권 보호센터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도 상시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음반·영상·게임·출판 등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간 상당한 성과도 나타냈다. 이는 체계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효율적으로 행한 하나의 징표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각 저작권자협회에서 진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저작권자 개인에게까지 권리행사의 식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가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여야 보다 굳건해진다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맺는말〉

이른바 “한류”의 지속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다.

개진된 내용에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는 지적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제도의 충실화를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단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고품질의 저작물을 확대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화의 헌법 내지 기본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고품질 저작물의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한류의 지속화도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저작권은 한류 지속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보시대 지식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급부상한 것이 저작권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Agreement on TRIPS)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도 저작권이다. 저작권 보호는 여기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 저작권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고품질 저작물의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한류의 지속화도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저작권은 한류 지속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보시대 지식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급부상한 것이 저작권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도 저작권이다.

